

가을의 절기와 기상

김 우 탁 (기상정보센터 소장)

秋分-추야장의 계절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계절. 태양은 황경 1백80도의 추분점에 이르고 지구상에서 볼 때는 이날부터 태양은 적도를 넘어 남반구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북반구의 지열은 더욱 식어가는데 비해 남반구에서는 점점 따뜻한 계절을 맞게된다.

「더위도 추위도 분절까지」라고 해서 아무리 늦더위가 심한 때라도 추분이 되면 몰라 보게 수그러지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들게된다. 이른바 추야장의 계절. 밤은 한없이 깊어가고 풀벌레 소리도 바다처럼 깊어 간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여름을 정리하고 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생활의 지혜라고 하겠다.

이론적으로 6개월전의 춘분에 이어 추분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것으로 돼 있으나 역서를 보면 이날보다 4~5일 가량 늦어지는게 보통이다. 이것은 지평선 부근에서의 태양광선은 지구에 에워싸고 있는 대기층을 지나면서 꺾여져 실제 보다는 더 올라와 보이기 때문이다.

寒露-그 이름의 묘미

공기중에 있는 수증기가 식어서 이슬이 되고 그 이슬이 대지의

냉각으로 인해 서리가 되기 직전까지 차겨워진다는 것이 한로라는 이름이 지닌 뜻이 되겠다.

이슬과 서리가 생기는 까닭은 비슷한데 다만 이슬이 생기는 조건에 지면 부근의 온도가 0℃ 아래로 내려가면 공기중의 수증기가 승화해서 서리가 되지만 0℃ 이상일때는 물방울도 응결되어 이슬이 된다.

그래서 10℃ 일때의 이슬에 비하면 0℃ 부근에서의 이슬은 찬이슬이라고 할 수가 있는 셈이다. 그런 뜻에서 한로라는 명칭은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

일반적으로 가을도 전기(前期)와 후기의 계절로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한로 이전까지는 여름의 잔재가 구석구석에 남아 있어 여름적인 가을인데 비해 이제 부터는 자연 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다같이 겨울형태로 바뀌어가는, 이를테면 겨울적인 가을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겨울 옷가지를 손질해서 갑자기 내려가는 기온에 대비한다든가 또 본격적인 난방에 들어가기 전에 아궁이나 구들을 일제히 재점검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의식주 생활을 겨울의 형태로 바뀌어나가야 할 때다.



霜降

된서리가 내리고 첫 얼음이 얼며 나뭇잎은 한편 물들고 한편 떨어지는 계절이다.

된서리를 보며 겨울이 가까왔음을 알게 되고, 도로에 튀구는 낙엽을 밟으며 무상을 느끼는 상강 이후의 계절을 우리는 만추라고 하는데 기후상으로 보면 가을과 겨울이 엇갈리는 시기가 된다. 그래서 그런지 이 무렵에는 한차례 겨울다운 추위가 몰려오고 첫얼음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무렵의 기온은 한차례 곤두박질 쳤다가도 또 한동안은 제 페이스를 찾게 마련이라, 겨우살이 준비에 너무 마음 조일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원래 계절의 이동이라는 것은 한번 앞섰다가도 또 한번 뒤질때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10월 하순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겨우살이 준비는 10월 하순의 추위가 몰려간 다음의 고온기간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난방기름 등 겨우살이 용품을 구입할 때는 추워졌을 때를 피하고 되도록 따뜻한 기간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유리하다.

立冬-만일 겨울이 온다면

11월 7일(또는8일)은 입동.

「만일 겨울이 온다면 어찌 봄이 멀었으리」라는 시가 있는 것 처럼 머지 않아 닥쳐올 봄을 기다리며 삼동의 겨울을 날 채비를 갖춰야 하는 계절이다.

해마다 입추는 한창 더울때 찾아들지만 입동은 냉기가 벌써 두어 차례 지나간 다음에 들기 때문에 그 절기명에 실감을 느끼게 한다. 실제 중부내륙지방은 벌써 얼음에다 첫눈까지 내리는 곳이 많다.

캘린더 상으로 보면 12월과 정월, 그리고 2월의 석달 동안이 겨울이 되는 셈이지만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입동에서 시작해 입춘까지의 90여일을 겨울로 따졌다.

우리나라의 기후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첫 추위가 대개 이 무렵을 전후해 들게 되나 이 추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곧 풀려, 한동안은 또 따뜻한 날이 계속된다.

그러다가 11월 하순에 가서 초장 한파가 몰려오기 때문에 이 무렵은 가을과 겨울이 엇갈리는 계절이 된다.

아뭏든 입동을 지나면서 부터는 낙엽을 몰아가는 북서풍과 백분을 뿌려놓은 듯한 된서리가 차례로 나타나 겨울다운 기미가 한결 짙어 지게 되며, 서울을 비롯한 중부 지방에서는 겨우살이 준비가 본격적인 시기로 접어든다.

小雪

추위가 심하지도 않고 첫눈도 아직은 이른, 그런 계절이다. 현대 9월과 10월의 절기로 한로니 상강이니 해서 지면 부근의 수증기 응결 현상으로 그 이름이 붙여 졌지만, 이제부터는 대설이니 소한이니 해서 기상현상의 양적인 표현으로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다.

옛말에도 「소설추위는 꾸어서라도 한다」고 해서, 이 무렵이면 으레 첫 추위가 몰려 오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실제의 날씨도 첫 추위는 대개 이 무렵을 전후해서 몰려오는게 보통이다.

기후표를 보아도 이번주 부터는 예년 기온으로 따져도 서울 지방의 경우 지면의 온도는 -4℃에서 -5℃까지 내려가는 시기가 된다.

따라서 이제 김장 채소는 한파가 밀려올 때가 아니더라도 보관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차례 추위가 몰려오는 것과는 달리 강원도 내륙 산악 지방을 제외하고는 아직 눈이 내릴 계절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첫눈 오는 날을 보면 서울·경기 지방이 11월 중순 호남지방이 11월 하순, 영남 내륙지방은 12월 상순 이후로 돼 있다.

그런데 눈이 가장 빨랐을 때는 중부 지방에서 10월 23일에 내린 적이 있다. ☞